

1. 연구소 동정

■ 김정석 소장, 방송 인터뷰, 좌담회 참여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

김정석 소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2024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에 좌담회의 좌장을 맡아 저출산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논의를 주재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1월 19일에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적 식견을 제시하였다. 1월 31일에는 아리랑TV의 라운드테이블 “저출산 위기의 한국, 해법은?”에 해법에 관해 인터뷰하였다. 관련 자료는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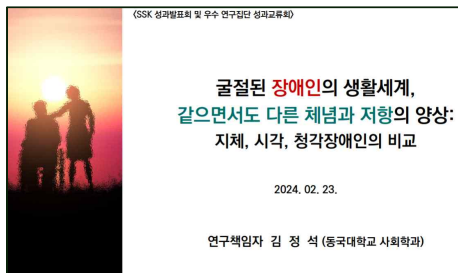
2. 연구 활동

■ SSK연구팀, (23-24) 제3차 네트워킹 심포지엄 참가

지난 2월 23일에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3-24) 제3차 네트워킹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행사는 SSK 성과교류회 및 우수 연구집단 성과교류회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날 SSK연구책임자인 김정석 교수는 “굴절된 장애인의 생활세계, 같으면서도 다른 체념과 저항의 양상: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의 비교”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SSK 사업의 현황을 제시하고, 여타 우수 연구진 간 연구 내용 및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다른 연구팀의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정석 연구소장 발표>



<발표자료>

■ 사회적경제 연구, 부산시 사회적돌봄 사례 FGI 진행

지난 2월 26일, 우리 연구소는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돌봄사업 현황을 찾아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부산시에서 진행되는 우리마을 법인의 “대안가족 형성 지원사업”으로 고령화되고 주거취약자인 개금3동에서 고령자 간의 서로돌봄과 공동체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그 동안의 대안가족 형성, 전력질주협동조합 등의 사업 내용을 듣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경험을 수행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협력의 지점과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조직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우리 연구소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사회적돌봄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 연구, “의료-주거 통합 돌봄기반 마련을 위한 포럼”

지난 2월 20일, 우리 연구소는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의료-주거 통합 돌봄기반 마련을 위한 포럼”을 공동주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현재 서울시의 노인 지원주택 운영 기관이 모여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5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종료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란다고 시의적 제언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모여서 현황 공유하고 릴레이포럼 등 논의자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원주택에 관한 연구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확인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 20여명의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1. 노원건강안심주택 운영 현황 및 사례(최봉섭 전무이사, 함께걸음의료사회협),
2. 서울시노인지원주택 사례(김용운 센터장, 서울시노인지원주택),
3. 마포구서범하우스운영 사례(고은주 이사장, 울림두레돌봄사회협),
4. 노인지원주택제도 및 운영이슈: 국내 및 일본사례(남춘호 연구원, 김일호 연구교수)
5. 노원구 노인주거복지현황과 정책제언(김경숙 센터장,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연구성과 공유회 발표>

3. 학술논문, 저서, 기고

§ 김미선, 황민지, 김정석, 2024, 가족관계 만족 및 대인신뢰에 따른 태도의 차이, 한국인구학 46(3).

인구 고령화 및 평균기대수명 연장과 더불어 만성질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그에게 고통을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이 인지한 가족관계 만족과 대인신뢰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활용하였으며, 총 853명을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주요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만족과 대인신뢰 외에도 배경변수인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건강수준, 가구형태, 종교를 고려하였다. 배경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존엄사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고, 불교나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존엄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배경변수를 통제된 후에도 가족관계 만족과 대인신뢰 변수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불만족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존엄사 태는 가족관계 만족 및 대인신뢰와 반대 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근거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콜로키움 알림(2024.01~2024.03)

- 제46차 콜로키움/ 2024.01.26.(금)/ 노인주거복지 제도
- 제47차 콜로키움/ 2024.02.23.(금)/ 일본의 노인주거복지 제도
- 제48차 콜로키움/ 2024.03.29.(금)/ 노인지원주택 현황